



문호준은 신인 두 명을 포함, 4명의 선수와 함께 올해 8월 17일부터 열린 '넥슨 2019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2'에 출전했다. 그가 하반기 리그에서도 정상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e스포츠 사상 최다 우승 기록

카트라이더 프로게이머 문호준

글 김지현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jihyunsports@mtn.co.kr 사진 성혜련

2004년 출시된 국내 게임 카트라이더는 올해로 16년 차가 된 게임이다. 출시 당시 손쉬운 조작과 박진감 넘치는 게임 진행으로 단숨에 국민게임으로 등극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 리그 오브 레전드를 비롯해 여러 명작 게임이 등장하면서 점차 카트라이더의 인기는 사그러들었다.

그런데 지난해 카트라이더가 '역주행'에 성공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역주행의 주요 요인으로 카트라이더 프로게이머들의 인터넷 개인 방송 진출이 꼽힌다. 이들은 유튜브와 트위치 같은 여러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카트라이더의 인기를 다시금 올려놓았다.

카트라이더 역주행 신화에 크게 기여하고, 오랫동안 카트라이더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프로게이머가 있다. 바로 14년차 카트라이더 프로게이머 문호준 선수다.

1등할 생각이 아니면 시작하지 마라

2006년 데뷔한 문호준 선수는 우리나라 프로게이머 중 가장 어린 나이에 프로로 데뷔했다. 그는 데뷔한 그 해에 넥슨 카트라이더 4차리그에서 결승까지 올라갔다. 이후

꾸준하게 실력을 갈고 닦으며, 누구도 범접하기 힘든 위대한 커리어를 만들어냈다.

그는 중국 리그 4회 우승과 비공식 대회 2회 우승을 포함해 무려 19회나 우승을 차지했다. 그가 14년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프로게이머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1년에 1회 이상 우승을 차지해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기록이다.

문호준 선수가 프로게이머로 데뷔하게 된 배경은 팬들 사이에서도 재밌는 일화로 유명하다. 문호준 선수 아버지의 지인이 PC방을 창업했는데, 이때 문호준 선수가 아버지를 따라 PC방에 놀러갔다. 그곳에서 한 손님이 재밌게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문 선수는 게임을 해보고 싶다고 아버지를 졸랐다. 그 게임이 바로 카트라이더다. 생애 첫 카트라이더 게임에서 그는 1등을 했다. 그렇게 카트라이더에 빠진 문 선수는 약 1년 동안 집과 PC방에서 카트라이더를 즐겼다.

TV를 보다 우연히 카트라이더 대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대회에 나가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카트라이더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다짐한 문호준 선수는 아버



문호준은 올해 3월 23일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에서 열린 '넥슨 2019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1'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그는 공식 리그 최초 11회 우승을 기록했다.



지에게 카트라이더 대회에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1등할 생각이 아니면 시작하지 말라고 하셨다. 당시에 저는 카트라이더가 너무 재밌고, 1등할 자신도 있었기 때문에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고 당당하게 얘기했다.”

문호준 선수의 용기와 자신감에 그의 아버지는 전폭적인 지원으로 답했다. 사비로 카트라이더 팀을 창단하고, 같이 연습할 선수도 영입했다. 더불어 연습할 공간까지 마련해줬다.

문호준 선수는 아버지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3달 동안 맨연습을 했다. 그리고 대회에 나가 놀라운 실력을 선보이며 단숨에 결승까지 진출했다. 당시 그의 나이 만 10세였다. 이렇게 우리나라 최연소 프로게이머 문호준의 커리어가 시작됐다.

재밌게, 그리고 아주 열심히

문호준 선수는 긴장을 하지 않는 타입이다. 어렸을 때부터 활동하며 여러 무대에 많이 서봤기 때문에 큰 무대라고 할지라도 크게 긴장하지 않는다. 긴장해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다 보니 경쟁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다. 그냥 카트라이더가 좋아서 즐기지만 했다. 예선 게임장에 가면 누군가는 환호하고 누군가는 울고 있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즐거워’는 생각만 가득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도 지는 건 또 싫어해서 재밌게, 그리고 아주 열심히 했다.”

그는 선수들이 흔하게 겪는 슬럼프도 거의 없었다. 다만 카트라이더 대회 규정이 바뀌고, 카트라이더의 인기가 전과 같지 않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였다.

“제가 개인전에서 독주를 하다보니 대회 규정이 개인전에서 팀전으로 바뀌었다. 이때 조금 힘들었다.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건 카트라이더의 인기가 좀처럼 올라오지 못한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열정적으로 해온 카트라이더가 더욱 사랑받고 성장하길 바라는데, 이게 내 바람처럼 안 되니 답답한 마음만 가득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문호준 선수는 게임을 하지 않는다. “노는 걸 좋아한다. 게임이 잘 안 될 때는 영화를 보거나 친구들과 나가놀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이때 잘하려고 게임을 더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이는 것 같기 때문이다. 카트라이더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스트

레스가 풀리고 나면, 다시 카트라이더에만 열중한다.”

카트라이더가 역주행에 성공한 3가지 이유

카트라이더는 뜨거운 인기로 힘입어 올해 3월, 10년 만에 야외무대에서 결승전이 열렸다. 카트라이더가 역주행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문호준 선수는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게임을 했던 것, 프로게이머들이 스트리머로서 활약하며 카트라이더를 알린 것 그리고 팬들이 끝까지 남아 있어준 것을 꼽았다.

본인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 묻자 그는 “작년 11월 중국리그에서 우승할 때 조금 기여한 것 같다”며 “그때 처음으로 유튜브 라이브에서 카트라이더 동시접속자 수가 1만 명이 넘었다”고 답했다.

문호준 선수는 올해 3월 카트라이더 리그 대회에서 개인전 우승, 팀전 준우승을 기록했다. 다음 대회는 8월이다. 대회와 대회 사이에 5개월 정도의 텅이 있다. 공백기가 긴 것에 대해 문호준 선수는 “대회가 실 틈 없이 쭉 이어지면 좋겠다. 어렵다면 중간중간 이벤트리그래도 열어서 카트라이더의 인기를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다. 대회 기간이 길다보니 그 사이에 카트라이더 인기가 다시 떨어질까봐 걱정이 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그는 카트라이더 시장이 더욱 커져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게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예전에는 카트라이더에 기업 후원이 들어오지 않았

다. 그런데 최근 샌드박스TV와 아프리카TV를 비롯해 여러 기업에서 후원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이 더욱 많이 참여해서 선수들이 카트라이더를 앞으로도 오래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조회수 300만, 크리에이터 문호준

대회 공백 기간 동안 문호준 선수는 스트리머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는 작년 10월 방송 플랫폼을 확장했다. 이전에는 아프리카TV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 팬들의 요청으로 유튜브와 트위치에서도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문호준 선수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약 48만 명이다.

인기 비결을 묻자 그는 “운이 좋게 타이밍이 잘 맞은 것 같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마침 카트라이더의 인기가 다시 올라오고 있던 시기였다. 이때 제가 올린 영상 중 하나가 조회수 300만을 넘었고, 이 영상이 페이스북을 비롯해 여러 플랫폼에서 노출되기 시작했다”고 겸손하게 답했다.

그는 재밌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팬들의 공이 크다고 강조했다. “제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팬들과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콘텐츠들이 많다. 또 이런 콘텐츠가 반응도 좋다. 확실히 방송 콘텐츠는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많이 느낀다.”

문호준 선수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 아직까지는 현역 프로게이머이



유튜버 문호준은 기존의 카트라이더 콘텐츠를 비롯해 일상, 먹방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 때문에 제가 플레이하는 모습이나 카트라이더 팀을 담은 콘텐츠를 주로 만들고 있다. 팬들의 요청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일상이나 먹방 같은 다양한 콘텐츠에도 도전해볼 예정이다.”

프로게이머 문호준, 인간 문호준

문호준 선수는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두 가지로 분류했다. 먼저 그가 프로게이머로서 세운 목표는 개인전과 팀전 동시 우승을 한 번 더 하는 것이다. 그는 2018년 열린 넥슨 카트라이더 리그 듀얼 레이스 시즌3에서 개인전과 팀전에서 모두 우승을 했다.

“동시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은퇴를 할 생각이다. 물론 프로게이머 문호준으로 각인된 인생이라 쉽게 그만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또 다른 목표는 인간 문호준으로서의 목표다. “은퇴 후 무엇을 할까 고민이 많다. 은퇴를 하더라도 현역 카트라이더 프로게이머 선수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아직까지는 선수들의 환경이 다른 인기 게임 선수들에 비해 열악한 편이다. 어떻게 하면 선수들이 즐기면서 돈을

더 벌 수 있을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힘이 되고 싶다. 또 카레이서에 도전해보고 싶다. 실제 주행을 하는 것에도 흥미를 갖고 있다.”

끝으로 문 선수는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먼저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 청소년들에게 그는 “솔직히 말하고 싶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잘해서 상을 타거나 돈을 버는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그동안 했던 게임은 시간 낭비가 되고 만다. 이게 너무 안타깝다. 재능도 있어야 하지만, 게임 선택도 중요하다. 인기 없는 게임을 선택하거나, 게임의 인기가 떨어지면 자신이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기 쉽지 않다. 만약에 게임이 사라진다면 정말 끝이 나는 셈이다. 그래서 정말 특출나게 잘하지 않는 이상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해주고 싶다.”며 진심으로 조언했다.

이어서 “이번 8월 대회는 신인 선수 두 명과 함께 출전하기 때문에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도 팀 선수들 모두 열심히 연습하면서 경기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다.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이겠다. 꼭 많은 분들이 직관을 오면 좋겠다”며 응원을 부탁했다. ㉠

CINEMATIC VR Experience
for
TWO AUDIENCES

**WITH
KOCCA**

VR로 재탄생한 드라마 ‘나인:아홉번의 시간여행’과 아이웨어 시장을 선도하는 뮤직 앤 스틸러, 정통 록밴드 웨터를 소개한다.

나인VR : 날 만나러 와요

NINE VR
: COME SEE ME